광주·전남지역 화물연대 협상 왜 안 풀리나

대형 화주들 협상장 안 나와 장기화

삼성 광주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 협상 제안 거부

타결돼도 화물연대 지도부 눈치 보느라 운행 안해

화물연대 파업 6일째를 맞아 광주·전남지부 산하 지회별로 운송료 협상이 속속 타결되고 있지만 물류의 숨통을 트이는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 광주공장 등 대형화주들이 협상에 임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중앙지도부가 지침을 내리지 않아 타결된 지회라 하더라도 화물차 운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25t 이하 소형 화물차들이 가입한 광주지부 2지회는 이날 오후 광주운송주선협회와 최저 운송료 보장 등에 합의하고, 합의서에 들어갈 세부항목을 조율하고 있다.

트레일러 조합원이 소속된 1지회 1분회도 이날 10개 운송주선회사들과 교섭을 진행중이며, 운송료 인상과 유가연동제 도입 등에 대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전자 광주공장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등 대형 화주들이 협상에 나서지 않아 화물연대 파업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화주 빅5는 컨테이너 운송을 기준으로 삼성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금호타이어, 광양항 화주 8곳, 여수산단 화주 17곳 등이다. 이 중 협상이 타결된 곳은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과 여수산단 뿐이다.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은 화물연대 광주지부 금호지회와 지난 14일 내수 및 수출 운송료 20~30% 인상과 유가연동제 도입에 합의했고, 금호지회는 화물연대 중앙지도부가 파업철회를 선언하면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는 화물연대 전남지부 여산분회와 여수산단 운송협의회가 18일 오전 카고 차량의 운송료를 13% 인상하고, 이달 1일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잠정 합의했다. 컨테이너와 탱크로리 차량도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삼성전자 광주공장과 대우일렉트로닉스는 화물연대의 협상제안 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물류 자회사인 삼성로지텍이 협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로지텍 측도 전국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만큼 광주공장만 따로 협상을 진행하긴 어렵다는 분위기다.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다. 물류 위탁업체인 글로비스가 전국의 기아·현대차 운송을 맡고 있어, 울산 등 규모가 큰 사업장이 타결돼야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우 일렉트로닉스도 화물연대 1지회 측이 협상제안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광양항의 경우 컨테이너 화주가 8곳이나 되고, 여수산단처럼 운송협의회가 구성돼 있지않아 화주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전남지부 측은 원청사인 광양항 물류회사 5곳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화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대형 화주들이 협상에 나서지 않음에 따라 화물연대 중앙 지도부에서 총파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화물연대 파업 돌입 이틀째만에 협상이 타결된 금호타이어 조합원들이 파업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박광태 광주시장이 18일 광주시청에서 김성호 화물연대 광주지부장을 비롯한 파업 지도부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손을 잡고 화물연대 파업 조기 타결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산업현장 물류난 피해 눈덩이

지역 경제단체 파업철회 호소 잇따라

화물연대의 장기 파업으로 지난 1989년 공장 설립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17일 중단됐던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조업이 18일 일시 재개됐다.

하지만 최근 일부 라인을 멈춰세운 대우 일렉트로닉스가 20일 이후 생산라인 추가 중단을 검토하는 등 광주·전남 산업현장의 물류난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되자 파업철회를 촉구하는 광주·전남 경제단체 등 각계의 호소문 발표도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 광주공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전 생산라인에서 조업을 재개했으며 야적장에 쌓여 있는 제품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운송하고 있다.

하지만 13일부터 파업이 이어지면서 운송물량 적체가 심해진 데다 장마로 운송에 애를 먹고 있어 또다시 조업 중단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우 일렉트로닉스는 내수용 물류운송이 전면 중단되자 지난 17일부터 전자레인지 생산라인을 중단한데 이어 20일 이후 세탁기, 냉장고 생산라인의 가동중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기아자동차는 수출 및 내수용 운송이 전면 중단됐으며, 금호타이어는 수출물량 반출을 멈췄다. 또 LG 이노텍, 한국알프스, 캐리어 등 사업장도 수출 물량은 물론 내수용 제품을 운반할 차량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물동량은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17일(155TEU)보다 다소 높은 224TEU를 기록했으며, 이날 오전 부산항에서 옮겨온 화물선에서 900TEU 가량의 컨테이너가 하역됐지만 장치율(32.8%)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다.

이와 관련,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물류기능 회복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이번 사태는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며 "그러나 파업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대기업들의 수출입 물품이 운송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원자재 조달 등에 애로가 커지면서 지역경제에 심각한 파장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도 성명을 통해 "정부나 화주들도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중인 만큼 서로 제도개선과 지원대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자"며 "파업으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관급공사 숨통 트일 듯

市, 건설노조 지역본부와 주요 현안 합의

광주시가 파업중인 건설기계노조의 요구사항인 표준임대차 계약서 채택, 운송단가 현실화 등 주요 현안을 전격 수용해 광주시 관급공사 현장이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18일 "시청 발주공사 현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작성,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 본부와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발주한 국지도 49호선 등 건설기계노조의 파업으로 공사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33개 주요 건설 현장에서 조업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합의문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준수 ▲불법하도급 명예감독관 위촉 ▲건설기계 표준품셈법 적용 등을 약속했다.

또 근로기준법 등 각종 민생법안의 정착을 위해 건설기계노조와 공동협의기구를 구성, 모임을 정례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김성호 화물연대 광주지부장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산업계의 파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주-화물연대간 성실한 교섭을 중재키로 약속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화물연대·화주와의 대화에 시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시장은 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화물연대측의 건의에 대해 "시의 재정계획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반영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건설기계노조 '현장투쟁' 돌입

율촌산단 공사 현장 등 곳곳 작업 차질

건설기계노조 파업 3일째인 18일 상경투쟁을 끝낸 광주전남지부 조합원들이 광주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파업투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산하 건설기계노조가 이날부터 파업을 풀기로 하면서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한 건설현장은 일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건설기계노조 광주전남지부 조합원 700여명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 미관광장에서 '파업승리 결의대회'를 갖고 '현장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차량 번호판을 목에 걸고 나와 표준임대차 계약서 전면 적용과 운송료 인상, 건설기계 사업자의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건설기계노조 조합원들은 앞으로 각 사업장으로 흩어져 건설회사 등과의 개별협상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며,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업장 대해서는 집중시위를 벌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주요 공사현장에서 작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여수 율촌산단 공사현장에서는 기존에 투입되던 건설기계 120대 중 덤프트럭 등 103대가 파업에 참여해 공사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또 덤프트럭 조합원들의 파업참여도가 높아 골재 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화물연대의 파업 여파로 공사자재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가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에서도 평소 투입되던 장비의 절반 수준인 70여대의 덤프트럭과 굴삭기만이 가동되는 등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한국노총 산하 건설기계노조의 파업철회 방침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파업이 장마와 맞물려 그나마 피해가 늘어나지 않고 있고, 광주시 등이 조정에 나섬에 따라 장마기간 내에 파업사태가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다.

광주지역 A건설업체 관계자는 "덤프트럭 등 건설장비 차주들과 개별접촉을 갖고, 업무복귀를 독려하거나 비조합원들을 통해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